

인간의 욕망 탐구...공장에서 건네는 환경에 대한 질문

김상연 작가, 31일까지 개인전
대형공간이 만든 기획 '검은 심장'
북구 첨단과학산단 물류센터
엠에스엘(주) 메세나 모델 제시
"동료 작가들 도전 물꼬 텃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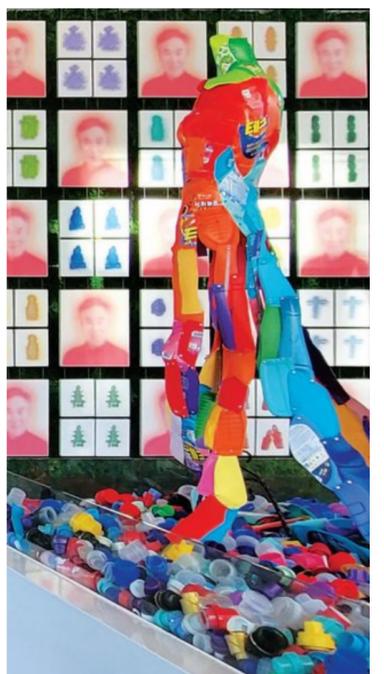
광주 북구 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물류센터에서 열고 있는 김상연 작가의 '검은 심장' 전.

'상상 그 이상'
예측을 벗어난 문화현장은 언제나 흥미롭다. '검은 심장'을 주제로 광주 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물류센터(첨단연신로 77번길 20)에서 열고 있는 김상연 작가의 전시가 바로 그런 경우다. 전시 타이틀 '공장 미술제' (31일까지·오전 10시~오후 7시) 소식을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던 모습을 '뛰어넘는' 전시다.
"일단 스케일과 규모로 압도하고 싶었다"며 의도를 숨기지 않은 김작가의 말처럼, 작품설치에만 한 달 반이 걸린 이번 전시는 규모에서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직원 휴게실, 차가 세워진 실내 주차장, 제품이 쌓여있는 물류 창고, 마당이 모두 전시장으로 변신했다. 특히 4개 섹션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 총 고가 10m에 달하는 물류창고 천정에 매달린 대형 검은 고래와 그의 대표작인 수습점의 '존재' 시리즈, 신작이 망라된 '검은 심장' 섹션이 인상적이다.
상상 밖의 전시는 공간을 흔쾌히 내어주고 제작비를 지원한 메세나 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광주문화재단의 문화동행 광주 문화예술 기부금 매정 사업을 통해 엠에스엘(대표 김해명)이 참여, 메세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김작가의 이번 전시는 '공간'이 만들어낸 기획이다. 지역의 유휴 공간은 어디에나 있다. 누군가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따라 생명을 얻는다. 전시 공간은 '있는 그대로' 활용하며 문화를 입히는 방법을 택했다.
"광주 작가의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규모 있는 작업에 늘 관심이 많았습니다. 광주비엔날레 등 지역의 중요한 행사에서 광주작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형 전시를 늘 생각해왔죠. 일단 저질러야 한다는 마음이었고, 이번에 기회가 돼 전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전시는 전남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중국미술대학 판화와 석사 과정을 마친 김작가의 작품을 집대성 현장이기도 하다. 전시에서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수인판화'와 설치 작품 등이 어우러졌고, 신작도 나왔다. 공간은 그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했다. 전시 제목 '검은 심장' 역시 공간을 보고 착안한 제목이다.
"내년 세계를 담은 흑백작업과 환경 문제 등 사회와 연결된 작업들이 결합된 현장입니다. 공장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현장이자, 환경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지요. 인간 욕망이 발현되는 공간이기도 하구요. 공장에서 무언가를 만들기 전에 환경문제 등에

대해 먼저 고민해 보자는 의도도 담았습니다."
휴게실에서 만나는 '나는 너다'는 280개의 조각회화 작품으로 새로운 프로젝트의 출발을 알린다.
"나'라는 인간의 존재를 형성하는 건 타인, 애장품, 음식 등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한 인간을 묘사하는 걸 자전소설, 평전이라고 할 때 이번 작품은 '이미지 평전'이라고나 할까요. 세밀한 기록화가 소설이라면, 제 작업은 시라고 할 수 있죠. 인물뿐 아니라 중요 '장소'나 '사건'도 작품의 소재로 삼아볼 생각입니다. 형식은 판화와 핸드페인팅을 결합한 '수인회화'라 할 수 있습니다."
11m에 달하는 설치작품 '우주를 유행하는 고래'는 플라스틱, 여망 등 해양 환경오염의 주범인 쓰레기를 기본 재료로 태양열 라이트와 영상 작업을 포함한다. 전시장 밖 설치작품은 수백개의 플라스틱 용기로 이뤄진 8m 높이의 '욕망의 오벨리스크'다. 끊임없이 커져만 가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해낸 작품인데, 바로 앞 공사현장의 크레인과 어우러져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는 김작가가 '정확하고' 준비한 기획이다. 동료 선배 작가들에게 '새로운 시도'와 '과감한 도전'을 멈추지 말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저도 자유롭게 못하지만, 많은 작가들이 안주하

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고착화되고 말죠. 표현과 생각이 더 다양해져야하고, 그게 작가에게는 큰 자산입니다. 전시장을 찾은 선배들이 일단 반가워하더군요. 더 넓은 공간에서 선배 동료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유휴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전시장에서 만난 김해명 회장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우선 대형 휴게실이 지속적인 문화공간으로 운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화를 잘 모르지만 관심은 조금씩 갖고 있었죠. 언젠가 호랑이사나우 아트폴리곤에 들렀다 우리 건물 옥상도 참 좋은 공간이지 싶었는데 이번에 작품 설치 과정에서 점점 변화하는 공간을 보며 흥미롭고 즐거웠습니다. 전시장으로 변한 휴게실을 보고 간 통기타 그룹이 자연스레 찾아와 공연을 열기도 하더군요."
김 회장은 "기업은 예술과 결합해야 창의성이 나온다"며 "공간을 비워두기 보다는 좋은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좋은 사람들이 오고가며 서로 마음을 나눌 때 회사 브랜드 가치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상연 작 '나는 너다' (부분)

화면 가득 노란 은행잎, 무등산 설경... '풍경의 진화'

전병문 초대전
30일까지 드영미술관

'수채화로 풀어낸 사계절 풍경.'
무등산 자락 드영미술관(관장 김동영)이 오는 30일까지 전병문 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
'풍경의 진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전 작가는 수채화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4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 작가가 작품의 주요 소재로 삼는 '숲'은 그에게 힘을 제공하고, 삶을 돌아보며 생각을 잠시 내려놓기도 하는 공간이다. 작가는 숲과 꽃과 나무 등 자연 속에서 느낀 감정들을 자신만의 붓터치로 풀어냈다.
화면을 가득 채운 노란 은행나무 인상적인 '가을 속으로'는 만추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이며 신비로운 느낌의 보랏빛 색감과 산 정상에 하얀 눈이 어우러진 '무등산 설경'은 색다른



'무등산 설경'

느낌을 전한다.
또 신록에 둘러싸인 소재원 등 남도 지역 풍광을 화폭에 담았으며 흐드러지게 핀 등나무, 화사한 벚꽃, 개망초, 도라지, 모란 등도 작품 소재가 됐다.
광주시전과 광주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한 전 작가는 한국미술협회, 광주·전남수채화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월요일 휴관. 문의 062-223-651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다채로운 가족의 행복한 모습 '인생 사진' 탄생



이성열 작 '가족을 통한 사회화과정'

한국프로사진협회 광주지회, 13일까지 D갤러리

'사진으로 만나는 가족.'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광주지회(지회장 문달순)가 13일까지 광주 동구 D갤러리에서 제 4회 인생사진전을 개최한다.
광주시 민간 문화 예술 단체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가족'. 22명의 회원 작품 40점이 출품된 전시에서는 백일을 맞은 아기, 가업을 잇는 자녀,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모습, 노부와 3대가 함께한 가족 등 앵글에 담긴 다채로운 가족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작가의 작품 '노을과 가족'은 붉은 저녁노을 속에 캠핑을 즐기는 단란한 가정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김인숙 작가의 '3대의 화목한 여행'은 즐거운 나들이를 떠난 대가족의 유쾌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여준다.
또 이영범 작가의 작품 '우리 이렇게 또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광주 고려인 마을로 피난 온 해외동포 가족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한국프로사진협회 광주지회는 지금까지 '人+然', '삶의 자리 광주에 살다', '현장에서다, 그대 소방관' 등 다양한 주제로 전시회를 열어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국무용제 대통령상 'Sun&Friends' 선유라 안무가

"후배들 설 자리 만들어주고 싶어"

"후배들이 설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안무가로서, 선배로서, 친구로서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전국무용인들이 한데 모여 실력을 겨루는 '제31회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광주의 'Sun&Friends' 무용 댄스컴퍼니가 화제다. 이들은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포함해 작품 주역 권기현 무용수의 우수 무용수상까지 2관왕의 영광을 안았다.
'Sun&Friends'는 지난 2019년 선유라(33) 대표가 주도해 만든 광주 무용 댄스컴퍼니로 현대무용에 대한 벽을 허물고자 매년 '현대춤 페스티벌'을 여는 등 현대무용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댄스컴퍼니의 안무가이자 선생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선 대표가 무용단을 창단하게 된 계기는 오로지 젊은 무용수의 설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함이었다.
"광주에서는 교수님들이 갖고 계시는 무용단이 아니고서는 20-30대 젊은 무용수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스스로는 공연 하나, 작품 하나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무대를 갈망하는 후배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단원은 총 12명, 대부분 광주에서 활동하는 20-30대로 이뤄져 있다. 'Sun&Friends' 팀 이름도 '선유라와 아이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선 안무가는 "수직적 의미가 부담스러웠다. 무엇보다 스승



과제자라는 격을 허물고 싶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의미를 담아 'Sun&Friends'라고 이름 지었다. 누구나 안무가가 될 수 있고 무용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도 함축돼 있다"고 말했다.
무용제에서 함께 무대를 일군 단원들은 모두 '프리랜서'로 이들이 한 데 모일 수 있는 시간은 밤 늦은 시각뿐이었다. 단원들은 전국 무용제 준비를 시작한 지난 2월부터 본부대까지 약 9개월 동안 야간 연습을 고사하며 무대 혼을 불태웠다.
"각자 색깔이 다른 친구들이 모인 만큼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반복했어요. 한명 한명의 색깔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게 하는 데 집중했죠"
특히 이번 무용제에 참여한 단원 모두 전국 대회에 한번도 출전해본 적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선 대표 역시 '최연소 안무가'로 이번 무용제 라인업에 등목돼 이목을 집중시켰고 이후 대통령상까지 거머쥐며 그 이름을 알렸다.
/김미은 기자 kdi@kwangju.co.kr



제31회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Sun&Friends' 단원들.